

‘피톤치드 가득’...해남 흑석산 숲속 힐링 축제 열린다

27-28일 흑석산 자연휴양림서 ‘치유의 숲’ 체험 흑돌 산책로 맨발걷기·원예테라피 등 체험 다채

해남군이 피톤치드가 풍부한 흑석산 자연휴양림에서 힐링축제를 선보인다. 27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역의 대표 산림치유 공간인 흑석산 자연휴양림에서 27-28일 힐링축제를 개최한다. 해남군 계곡면 흑석산(653m)에 자리한 흑석산 자연휴양림은 산림복합 휴양 공간으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과 전문 산림교육 등을 운영하는 해남의 대표 산림휴양지다. 피톤치드가 풍부한 참나무 군락지를 따라 치유의 숲이 조성돼 있고, 치유센터와 치유정원, 숲속놀이터, 유아숲체험원, 장미정원 등이 조성돼 있다. 숲속에 들어선 숙박시설과 야영 데크 등은 자연속에서 여유로운 힐링을 즐기는 휴양객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번 축제는 자연휴양림이 신록으로 물들고, 흑석산의 명물인 철쭉이 만개하는 계절을 맞아 흑석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며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행사로 마련됐다.



흑석산 숲속놀이터 목재기둥오르기.

해남군은 주민들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다채로운 공연,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자연휴양림 곳곳에 숲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또 어린이 사생대회와 댄스경연대회, 흑석산 가요제 등이 열리며, 페이스페인팅, 연 만들기, 뽕튀기 만들기, 숯대제련, 원예테라피 체험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행사이며 해남의 대표 특산물인 전사·판매하는 농산물 홍보 판매관과 먹거리 장터도 운영한다.



해남군이 오는 27-28일 흑석산 자연휴양림에서 힐링축제를 개최해 자연을 만끽하며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행사를 마련했다.

특히 자연휴양림 곳곳에 힐링 공간을 마련해 숲 체험을 할 수 있는 숲속 힐링체험이 마련된다. 치유의 숲에 마련된 흑돌 산책로 맨발걷기를 비롯해 숲속 멧돼지기, 마음

껏 소리를 지를 수 있는 메아리존, 숲속 가야금 연주, 티벳네팔 심잉볼체험 등 특색있는 프로그램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철쭉 군락지를 찾아가는 흑석산 산행

행사도 열려 자연휴양림에서 깃대봉 정상까지 등산코스를 함께 걷는다. 올해로 2회를 맞는 흑석산 철쭉제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주민 주도 축제다.



해남군 관계자는 “아름다운 흑석산 자연휴양림에서 열린 이번 축제에서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해남=백필용기자

‘음악도시 강진’ 전국 버스커 발길 유혹

내달부터 매주 목요일 ‘차 없는 음악문화거리’ 시범 운영 거리공연 버스커 모집...공연비 지원·군 사업참여 혜택

강진군이 음악도시 조성을 위한 거리공연 지원사업으로 전국 버스커들의 발길을 유혹하고 있다. 강진군은 27일 “오는 5월부터 일상속에 음악이 있는 음악도시 강진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 없는 음악문화의 거리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매주 목요일, 강진의 밤을 음악으로 수놓을 이번 사업에는 거리공연이 가

능한 버스커라면 지원 조건에 맞춰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선정된 버스커에게는 공연비 지급과 강진군 타 사업 참여기회 부여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모집 기간은 이달 22일부터 사업이 끝날 때까지이며 서류합격자 1차 발표는 5월3일 개별 통지한다. 모집 분야는 라이브 음악공연은 블루스, 재즈, 발라드, 합창 등 장르 무관

하며, MR과 반주기는 사용이 불가하다. 퍼포먼스 공연은 저글링, 댄스, 곡예, 비트박스, 디제이 등 역시 장르와 관계 없다. 음원 사용은 가능하다. 모집 정원은 30개팀 안팎이며 공연 일정에 따라 확대될 수 있다. 접수는 E-메일(mctk@korea.kr)로 하면 된다. 참가신청서 양식 등 자세한 내용은 강진군 누리집-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 청 문화관광실(061-430-3345)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군 관계자는 “공연장이 아닌 주민 생활권에서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대형 음향시설보다는 거리 속 BGM 역할을 할 수 있는 라이브 공연팀을 선정할 계획”이라며 “음악을 통해 방문객들이 강진에서 시카고를 느끼고, 강진에서 흥대를 느낄 수 있도록 전국 우수한 팀들의 많은 참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이번 사업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지역문화진흥원에서 추진하는 ‘2024 문화가 있는 날-구석구석 문화배달’사업에 선정돼 국비를 확보했다. /강진=정영록기자

김산 무안군수, 공약 이행률 61.9% ‘순항’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 등 올해 3개 사업 완료

무안군은 27일 “김산 군수의 2024년 1분기 공약 이행률이 61.9%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선 8기 김산(사진) 군수의 공약은 7개 분야 100개 공약으로, 이중 임기 내 완료 대상 공약이 95개, 임기 후 완료 공약이 5개다. 김 군수는 매 분기 공약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공약 이행을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올해 새로 완료한 공약 사항은 ▲청계면 도시재생사업 선정추진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 ▲축산악취 저감 사업 등 3개다. 이 중 50세 이상 군민에

게 대상포진 예방접종비의 50%를 지원하는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사업은 당초 완료 목표인 2023년보다 2년 빨리 완료해 많은 군민들의 효용을 얻었다. 김산 군수는 “연내 공약 이행률 목표인 73%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안주해서는 안 된다”며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약 이행에 속도를 더해 줄 것”을 주문했다. /무안=김상호기자



완도군이 지난 6일부터 개최한 ‘2024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사진은 축제 기간에 관광객으로 붐비던 청산도항 전경. <완도군 제공>

‘유채꽃 활짝’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성료

3만3천여명 방문...청산 완도·범바위 기(氣) 치유 등 인기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인 완도 청산도에서 열린 ‘2024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27일 완도군에 따르면 올해 축제는 ‘치유가 필요해, 청산도를 걸어봐’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축제 대표 프로그램인 ‘청산 완보’에는 1천977명이 참여해 슬로길을 걸으며 유채꽃이 활짝 핀 청산도의 봄을 만끽했다. 이번 축제에는 총 3만3천여명의 발길이 이어졌으며 특히 주말에는 총 2만2천여명이 방문해 완도항과 청산도 주요 관광지가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강한 자성의 영향으로 나뭇잎이 작동하지 않아 신비의 바위라 불리는 청산도 보적산 범바위에서 전문 강사와 함께하는 ‘기(氣) 치유’ 프로그램에는 200명, 은하수 출사를 떠나는 ‘별이 빛나는 청산도’에는 60여명이 함께 했다. 완도군은 범바위 기(氣) 치유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축제 기간 동안 해조류, 허브 맥반석, 소리, 향기 치유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청산 해양치유공원을 찾는 발길도 꾸준히 이어졌다. 축제는 끝났지만 청산도를 방문한

관광객이 여객선 승선권을 소지한 후 완도 해양치유센터를 방문하면 1층 프로그램 이용료를 30% 할인(맹입)해주는 이벤트는 오는 30일까지 계속된다. 완도군 관계자는 “주민과 관광객들의 협조 덕분에 축제를 잘 마무리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내년에는 슬로시티 청산도의 매력을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산도는 푸른 바다·산·구들장·논·돌담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전통 문화가 어우러진 곳으로 2007년 12월1일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선정, 2011년 국제슬로시티연맹 공식 인증 ‘세계슬로길 1호’로 지정됐다. /완도=윤보현기자

‘신북면민의 날’ 성료

영암군, 인재육성 장학금 1억 기탁 면민의 상·장한 어머니상 등 수여

영암군 신북면청년회는 “최근 신북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면민과 향우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6회 신북면민의 날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 앞서 식전공연으로 색소폰, 고고장구 연주가 있었고, 고향을 지지하는 기부가 이어졌다. 신북면 용산리 출신인 최경주 미래에셋증권 고문은 영암군미래교육재단에 인재육성 장학금 1억원을 기탁했고, 이중 5천만원은 면의 학생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이하남 영암군의회 7대 의장이 지역발전과 면민 화합에 기여한 공로로 ‘면민의 상’을, 유곡3리 정영래 씨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모범적인 가정을 이룬 ‘장한 어머니상’을 수상했다. 기념식 이후에는 초대 가수 공연, 경품추첨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면민들의 흥겨운 한마당을 연출했다. 이상수 신북면청년회장은 “신북면은 예부터 충효의 고장, 서남해안의 교통 요충지로 높은 문화수준을 유지해왔다”며 “신북면민이 하나로 나서 화합과 친목이 넘치는 아름다운 고장을 함께 가꿔가자”고 말했다. /영암=나동호기자

“이순신 거북선 총통 유효 사거리 15m”

목포해양대 연구팀서 규명 日 수군장 전투 목격담 일치

목포해양대학교 이순신 해전 연구팀이 거북선 실전 전술의 비밀을 풀 수 있는 함포(사신의 유효사거리와 사각구역실체를 규명한 논문을 최초 공개해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27일 목포해양대학교에 따르면 이순신 해전 연구팀이 지난달 한국해군과학기술학회지 논문에 게재한 ‘거북선 함포의 유효사거리와 사각구역 규명에 관한 연구’에서 임진왜란 시기 거북선의 함포로 활용된 총통의 적신 선체 타격 유효사거리는 15m 안팎으로 규명했다. 10여년간 연구팀을 이끈 고광섭 교수



는 거북선의 함포로 활용된 총통 발사체의 궤적을 판단할 수 있는 탄도 체계를 정립한 후 일본 전선을 모델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임진왜란 참전 일본 수군장 ‘노노오카 진자에몬(外岡甚左衛門)’의 ‘고려선전기(高麗船戰記)’에 서술된 안골포해전에 서의 생생한 거북선 전투 목격담 기록과도 거의 일치했다. /목포=정해선기자

영광군, 부동산권리분석사 교육생 모집

오는 30일까지 선착순 25명 모집

영광군은 27일 “부동산권리분석사 양성 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권리분석사는 부동산에 관련된 다양한 권리 관계를 조사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수행 전문가이며, 교육은 오는 5월13일부터 7월1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간30분씩, 총 8차시로 운영된다.

수강 신청은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미취업자로, 부동산에 관심있는 영광군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과정은 이수 후에는 감정평가법인, 부동산중개투자·신탁회사 등 부동산 관련 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동산권리분석사 자격증 취득 기회가 주어진다. 접수는 오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인구교육정책과에 현장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영광=김동규기자